

# 2004, 벤처기업

# M & A 활성화 여건 성숙

글 \_ 임윤철(기술파가치 대표)

올해 들어,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가로 막았던 요소들은 크게 개선되었다. 작년에는 M&A 관련한 주식 맞교환에 대한 규제나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되어 보다 자유로운 M&A가 가능해 졌다. 또한, 자금 측면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는 스마트한 M&A 자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청이나 산자부 등에서는 벤처기업 M&A와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펀드를 조성하거나 조성할 계획이며,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도 대형 구조조정 펀드를 결성하고 나섰다.



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전반적으로 비교우위 산업과 업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고도화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도 이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사업구조 조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체로 결합 또는 통합되는 합병(Merge)과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Acquisition)하는 것을 의미하는 M&A가 기업의 사업구조 조정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 도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M&A는 기업 내부의 경영 자원만으로는 생존과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경영능력, 인력, 기술, 자본, 시장, 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술과 시장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내부 역량이 취약한 벤처기업들은 기술 개발에서부터 제품 생산 및 영업·마케팅에 이르는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축적하는 데 장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경우 시장은 그러한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 M&A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벤처기업들은 동종 벤처기업간의 수평적 합병, 관련 산업 내 대기업에 의한 지분 및 경영권의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M&A를 독자적인 IPO와 더불어 기업의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매우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AOL, 아마존, 야후 등은 M&A를 기업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였으며, 휴대용 PC 시장을 선도해온 컴팩도 2002년에 HP와 합병하였다. 기술 개발에서부터 상업화까지 10년 내외의 긴 시간을 요하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도 글로벌 제약 회사들은 각종 바이오테크 기술을 갖춘 벤처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도 2000년을 정점으로 과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벤처기업의 창업, 투자 그리고 코스닥 등록의 열풍이 꺼지면서 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M&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거품 시대에 수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하면서 정보통신 및 인터넷을 비롯한 대부분의 벤처업종에서 벤처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벤처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벤처기업들 간

의 M&A가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시장을 넓혀야만 생존이 가능한 정보통신 장비업체나 바이오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는 자금력과 마케팅, 영업력을 갖춘 대기업들과의 M&A가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IPO로는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회수할 필요성 때문에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의 M&A를 원하고 있다.

### M&A 관련법 개정과 장기투자로 활성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M&A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그 동안의 벤처기업 M&A 사례들 중 상당수는 음성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M&A 관련 법령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간의 직접적인 주식 맞교환을 규제하거나, 미 실현된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 간 M&A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우회 등록과 같은 편법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추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이 문제가 나타났다.

두 번째, 벤처기업의 M&A에 투자된 자금이 단기성 투기 자금인 경우가 많았다. 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수의 주체가 경영력이나 기술력을 갖춘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벤처기업 M&A에 있어서 인수 주체들은 인수 후 경영 능력을 못한 단기 투기 자금들이었다.

올해 들어,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가로 막았던 이 두 가지 요소들은 크게 개선되었다. 작년에는 M&A 관련한 주식 맞교환에 대한 규제나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되어 보다 자유로운 M&A가 가능해졌다. 또한, 자금 측면에서도 보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는 스마트한 M&A 자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청이나 산자부 등에서는 벤처기업 M&A와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펀드를 조성하거나 조성할 계획이며,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도 대형 구조조정 펀드를 결성하고 나섰다.

벤처기업들도 M&A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다. 연초에 중기청이 조사한 바로는 3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이 M&A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모로 올해가 벤처기업 M&A의 원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M&A가 활성화되어 벤처기업의 진입, 성장, 퇴출이 원활한 역동적인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